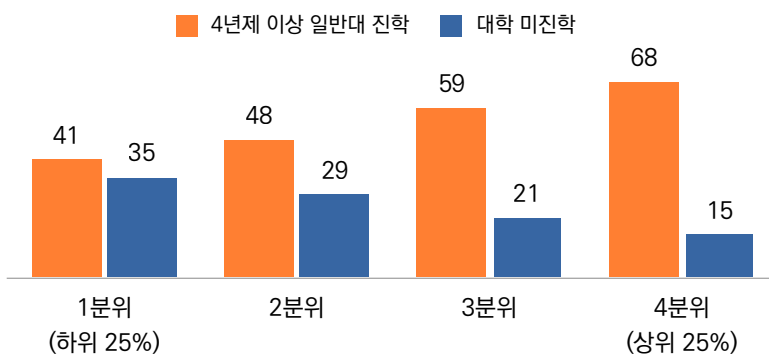




부모 소득이 높을수록, 자녀가 대학에 갈 확률 높다!

- ▶ 현대 사회에서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학력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?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최근 연구 결과 발표 자료에 따르면, 부모의 소득을 1분위(하위 25%)부터 4분위(상위 25%)까지 4단계로 구분하여,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학력 간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, 부모의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즉, 부모가 잘 살수록 자녀가 4년제 이상 일반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학력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.
- ▶ 반면, 1분위(하위 25%) 가정 자녀의 경우 대학 미진학 비율이 4년제 이상 일반대 진학 비율 수준까지 올라 온 것으로 나타났다.

[그림] 부모 소득에 따른 자녀의 대학 진학률** (%)



*자료 출처 : 동아일보, 부모 소득이 대학 진학 좌우... '사교육 의존' 방지 안 된다, 2022.12.19.

(<https://www.donga.com/news/article/all/20221218/117054255/1>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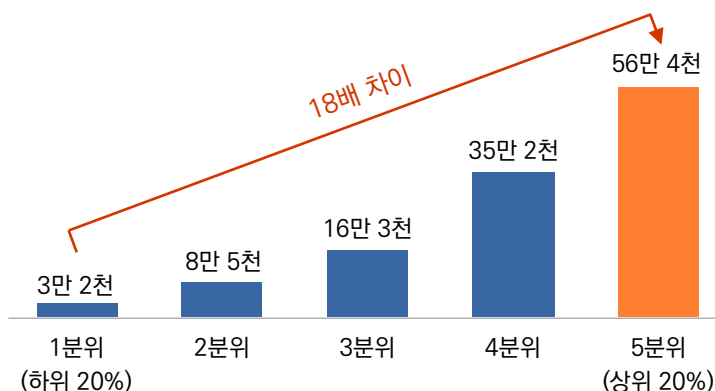
참조) 원자료 출처 : 한국직업능력연구원, 부모의 소득 수준이 자녀의 학력 수준에 미치는 영향 (KRIVET Issue Brief 247호), 2022.12.15

**2020년 기준 소득과 학력 상태임

◎ '하위 20% 가구'와 '상위 20% 가구', 월 평균 교육비 18배 차이!

- ▶ 그렇다면 자녀의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비**는 소득 수준별로 얼마나 차이를 보일까? 통계청의 2022년 3/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5분위별(1분위 : 하위 20% ~, 5분위 : 상위 20%) 가구 월 평균 교육비는 '1분위' 3만 2천 원, '5분위' 56만 4천 원으로 집계됐다. 하위 20% 가구와 상위 20% 가구의 월 평균 교육비 차이는 무려 18배에 달한다. 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이다.

[그림] 소득 5분위별 가구 월 평균 교육비 지출액 (2022년 3/4분기 기준, 원)



*자료 출처 : 통계청, 2022년 3/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, 2022.11.17.

**정규교육, 학원·보습교육, 기타교육 포함(단, 성인학원교육도 포함되어 있음 유의)